

2013. 10. 0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3년 10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 매수 : 11매

역사문화재과장	황요한	2133-2611
문화재연구팀장	김수정	2133-2636
담 당 자	조영훈	2133-2640

서울시, 5일(토)부터 최규하 대통령 가옥 시민에게 개방

- 市, 정부수반유적 최규하 대통령 가옥 복원하여 10.5(토)부터 시민에게 개방
- 최규하 대통령 가옥 : 등록문화재 제413호, 마포구 서교동 467-5 소재
- 현대 생활사와 서울 주택 변천사의 생생한 보물 창고
- 내부에는 거주 당시의 생활유물 약 500여 건이 원형 그대로 보존
- 향후 지역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적극 활용 계획

☐ 대통령은 어떤 집에 살았을까? 대통령의 서재에는 어떤 책이 꽂혀 있고, 대통령의 책상에는 어떤 물건들이 놓여 있을까? 멀게 느껴졌던 대통령의 일상 모습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 서울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살던 서교동 가옥의 복원 및 전시 공간 조성을 마치고 10월 5일(토)부터 시민에게 개방해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가옥은 최규하 전 대통령(1919.7.16 ~ 2006.10.22)이 1973년부터 1976년 제12대 국무총리에 임명되어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이주할 때까지,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1980년부터 2006년 서거할 때까지 줄곧 거주한 가옥으로, 내부에는 거주 당시의 생활유물 약 500여 건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최규하 대통령 가옥 현황 - 등록문화재 제413호

- 소재지 : 마포구 서교동 467-5
- 규모 : 【부지】 359.7 m²
 【건물】 연와조 세멘와즙 1동(지하1층·지상2층/총면적 330.05 m²)
- 건립연대 : 1972년
- 등록일 : 2008.10.10
- 소유자 : 서울특별시(2009년 7월 매입)

□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50~60년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기반을 마련하고,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전 세계가 힘들 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직접 설득하여 원유확보 위기를 타개한 유능한 외교관이었다.

□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1979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나 정치적 상황으로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서교동 사저에서 말년을 보냈다.

□ 가옥은 지상 1, 2층과 지하층으로 이뤄져 있는데 허례허식과 거리가 먼, 검소한 생활을 했던 최규하 대통령 부부의 오랜 세월이 담긴 살림살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1층에는 안방과 응접실, 영부인이 기거하던 작은 방이 있으며, 2층에

는 서재와 자녀방(현재는 전시실)이 있다. 지하층에는 말년 대통령 부부가 생활하던 작은 방(현재는 임시 관리실로 이용)과 살림살이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부엌과 전시실이 있다.

- 1층 응접실은 대통령이 외부 방문객을 맞아 담소하시거나 말년에 주로 시간을 보내던 곳이다. 이곳에는 골동품처럼 보이는 60년 된 선풍기와 장남이 미국에서 사용하다 가져온 창문형 에어컨, 30년이 지난 소파와 탁자 등이 남아 있다.
- 1층 작은 방에는 영부인 홍기 여사가 사용했던 싱거 미싱과 영부인이 즐겨 입던 한복이 남아 있으며, 주로 손님을 접대하던 식당에는 여러 벌의 컵과 술잔, 찻잔 등이 남아 있다.
- 2층 서재에는 외교관 시절 사용했던 여권과 외무부 장관 임명장, 국무 총리 임명장을 복제하여 전시하고 2층 자녀방은 전시실로 꾸며 대통령의 활약상을 사진과 패널, 영상을 통해 소개하였으며,
- 2층 전시실 유품 코너에는 대통령이 착용하던 양복 · 구두와 지팡이, 애연가였던 대통령의 라이터 등 소지품과 영부인이 사용하던 핸드백과 전화번호수첩, 당시 1원짜리 동전을 담았던 영부인의 지갑도 그대로 전시하였다.

□ 이제 서교동 최규하 대통령 가옥을 개방하게 됨으로써 최규하 대통령의 일상을 시민들은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공간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의 생활상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가구와 각종 생활 소품 등이 남아 있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개방에는 최규하 대통령 가옥의 유품들을 서울시에 기증해 시

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유족[대표 최윤희(장남)] 측의 결심과 배려가 있었다.

- 서울시는 2009년 7월 〈최규하 대통령 가옥〉의 영구보존을 위해 유족으로부터 가옥을 매입하였고,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 까지 복원을 완료하고 2012년 6월까지 전시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2012년과 2013년 2차례 보존 처리와 훈증을 하였으며 2013년 6~9월에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추가 전시물 설치 및 관람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 개방 방법

: 가옥은 상시 개방하나 가옥 실내는 등록 문화재 413호인 가옥과 내부에 있던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 유품 보호를 위하여 사전 예약 후 해설자의 안내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정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에 휴관한다.

관람 사전 예약 방법

- 관람방법
 - 가옥관람 : 가옥 실외(마당)은 휴관일 외 상시 개방
 - 전시관람 : 실내는 전시된 대통령 유품 보호를 위해 전시 안내자를 따라 이동하는 제한 관람 시행
- 예약 운영 방법
 - 관람인원 : 회당 20명 내외
(사전 예약 15명 이내 / 현장 접수 5명)
 - 관람시간 : 1차 10:30~11:30 / 2차 13:00~14:00
3차 14:30~15:30 / 4차 16:30~17:30
 - 해설제공 : 자원봉사자가 인솔하여 전시 설명
 - 사전예약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회차별 예약 접수
주소 <http://yeyak.seoul.go.kr>
통합검색(최규하대통령가옥) > 예약신청하기 > 로그인 > 날짜 회차 선택 > 이용자정보입력 > 신청완료

- 시는 향후 마포구와 협의하여 지역 내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가옥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교장, 장면총리 가옥 등 정부수반유적과 유적 인근의 홍대, 신촌 등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탐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코스를 새롭게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최규하 대통령 가옥 전경



최규하 대통령가옥 전시 현황



대통령이 손님을 맞이한 1층 응접실



영부인이 기거하던 작은 방

최규하 대통령가옥 전시 현황



대통령의 책상과 철지난 달력으로 만든 메모지가 남아 있는 2층 서재



대통령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패널과 대통령의 유품이 전시된
2층 전시실(옛 자녀방)

최규하 대통령가옥 전시 현황



말년 대통령 부부가 식사하던 지하 부엌



부엌살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지하 전시실

주요 전시물



애연가였던 대통령의 라이터와 영부인의 핸드백 등 유품



외무부장관 임명장 및 명패, 외교관 여권 등 대통령의 공적 활동 유품(복제)

주요 전시물



1원짜리 동전을 모아 지폐로 바꿔 사용했던
영부인의 동전 지갑



애연가 대통령이 낳아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던
자개 담배함



아직도 응접실에 걸려 있는, 장남이 미국에서
사용했던 창문형 에어컨



주 일본대표부 총영사시절 딸 종혜씨가 땀띠로
고생할 때 구입한 1950년대 선풍기